

제21장 나자렛의 성가정

레지오의 회합들, 특히 레지오 조직의 심장을 이루는 쁘레시디움 회합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관한 교리를 각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주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모인 당신 신비체의 지체(肢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체들 안에서 당신 현존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 당신의 권능이 온전히 드러나는 조건으로 지체들의 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신 이유는 아마도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부족함 때문일 것이다. 즉, 개인의 덕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부분적으로밖에 드러내실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간단한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 보면 이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한 장의 색유리는 그 색과 똑같은 색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빛은 모두 차단해 버린다. 그러나 제각기 다른 색을 가진 여러 장의 색유리가 한꺼번에 각각의 빛깔을 투사하면 이 여러 색의 빛깔들은 모두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의 빛을 만들어 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이면 각자가 지닌 여러 다른 능력들이 서로 보완되므로, 주님께서서는 이 무리를 통하여 당신의 완전하심과 권능을 더욱 충만하게 나타내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쁘레시디움에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서는 것처럼 강력한 방식으로 현존하신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힘은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알려져 있다(마르 5,30 참조).

또한 이 작은 레지오 가족 모임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성 요셉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맺으셨던 똑같은 관계를 뿌레시디움과도 맺으신다. 이로써 우리는 그 뿌레시디움이 나자렛의 성가정을 투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신심 행위로서가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둔 실재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베릴르(Bérulle)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사건과 신비를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생생한 현재의 것으로, 아니 영원한 것으로까지 대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뿌레시디움이 사용하는 방과 기물을 경건한 마음으로 나자렛 성가정의 집과 가재도구와 동일시해볼 수 있고, 뿌레시디움의 비품과 집기를 다루는 단원들의 태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활동하시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단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시금석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면, 쁘레시디움을 가정처럼 만들어주는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달콤하고도 강렬한 마음이 들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이 회합 장소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책상이나 의자 또는 제대나 책 등 회합에 쓰이는 기물은 전적으로 단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단원들은 나자렛의 성가정인 쁘레시디움의 어머니께서 오래 전 갈릴래아에서부터 모든 정성을 대해 돌보아 오신 살림살이를 자신들의 뽀레시디움에서도 계속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가? 성모님은 단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 단원들은 도움 드리는 일을 거부할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위한 성모님의 활동을 그르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지오는 단원들에게 성모님이 집안 살림을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상상해 보도록 권해야 한다.

나자렛 성가정은 비록 가난하고 가재도구도 좋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틀림없이 가장 아름다웠을 것이다. 성모님은 전 시대를 통틀어 모든 주부나 어머니들 중에서 유일무이한 분으로서 섬세한 취향과 고상함을 지니신 분이셨기에 그러한 성모님의 성품은 집안 곳곳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박한 살림살이나마 어딘가 모르게 사랑이 배어 있거나, 보통 물건 하나하나에도 눈길을 끄는 매력이 깃들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물건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지금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것들을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성모님은 오로지 사랑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성모님은 살림 도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깨끗이 닦고 윤기가 나게 하고 훌륭하게 만드셨다. 그것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존재해야 했기 때문이다. 성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는 어느 것 하나 조화를 깨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없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 작은 성가정은 다른 어느 가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금자리였기 때문이다. 나자렛의 성가정은 구원 사업의 요람이었으며,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한 터전이었다. 성가정 안의 모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기묘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그러한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에 알맞아야 했고, 그 모든 것은 성모님이 쏟으신 정성으로 깨끗이 정돈되고 빛이 나며 이루어 형언할 수 없는 고상한 품위를 지니게 됨으로써 알맞은 것이 되었다.

쁘레시디움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단원들을 육성하는 데 각각 나름대로 이바지해야 하므로, 단원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반영해야 하듯이 뽀레시디움은 성가정의 모든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어떤 프랑스 작가는 『내 방 둘러보기』라는 책을 썼다. 단원 각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뽀레시디움을 차근차근 둘러보며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 이를테면 마루, 벽, 창문, 집기, 제대용 비품, 그 중에서도 이 가정의 중심이며 어머니이신 성모상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합에 임하는 단원들의 태도

와 그들이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 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쁘레시디움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나자렛 성가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뽀레시디움은 나자렛 성가정의 정신이 깃들여 있지 않은 뽀레시디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뽀레시디움은 죽은 것보다도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때로는 간부들이 무익한 부모처럼 처신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단원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거의 모든 경우 뽀레시디움의 결함을 짚어 올라가 보면 그 원인이 간부들에게 있음을 보게 된다. 단원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출석률이 저조하고, 활동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주회합에 참석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간부들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고 있기 때문이고, 단원들을 더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간부들에게서 받고 있는 훈련을 통해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을 나자렛 성가정과 견주어 보기 바란다. 성모님이 살림살이와 질서를 것처럼 소홀히 하시면서 아드님께 볼꼐사나운 훈육을 시키셨다고 가정해 보라!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성모님이 단정치 못하고 나약하고 믿을 수 없고 무관심한 분이셔서 나자렛 성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그 결과 이웃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광경을 머리에 떠올려 보려고 노력해 보라! 물론 이것은 그저 상상일 뿐이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레지오 간부들은 자신들의 성가정인 뽀레시디움을 성모님의 참된 화신(化身)으로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공언하면서도 부끄럽게도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뽀레시디움의 신심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충만히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가정의 정신은 성가정이 살았던 집이나 나자렛이나 유다 지방이나 또는 그 어떤 경계에 의하여서도 갇혀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뽀레시디움의 정신도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갇혀있을 수 없다.

“가톨릭 신자들은 가히 칭찬할만한 예술가적 감각으로 하느님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것은 나자렛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성모님께 세세히 여쭙는 것을 그들이 꺼려하기 때문이다. 나자렛 마을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초인적인 강도로 사셨던 그러한 생활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낼 수 있겠는가? 성모님과 예수님은 당신들의 행동과 정서와 뜻이 모두 완전히 뒤섞여 어우러질 정도로 생활하셨다. 나는 나자렛 마을의 언덕에 올라 거기서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내려가고 있

는 한 여인과 그녀 곁을 따라가고 있는 열다섯 살짜리 한 소년을 바라본다. 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느님 대전에선 살고 있는 천사들 사이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그 이상을 보게 된다면 너무 놀라고 황홀하여 죽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보니에 Vonier : 하느님의 어머니)

제22장 레지오의 기도문

레지오 마리아의 모든 회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기도를 바쳐야 한다. 단, 개인적으로 바칠 때에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협조단원은 이 기도문 모두를 매일 바쳐야 한다.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의 처음과 끝에 성호경을 바친다. 기도문을 나누지 않고 모두 바칠 때에는 맨 처음과 끝에만 성호를 긋는다.

1. 시작 기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비교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영어판에는 이 두 줄이 구분되어 있음.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비교

○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의 은총을 이 세상에 부어주소서. 당신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믿는 모든 이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시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 제 입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 하느님, 저를 도와 주소서.

- 주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와 주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 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요셉,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사도 성 요한,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레지오의 까떼나

회합의 중간에 바치며, 모든 단원은 매일 의무적으로 바친다.

◎ 〈후렴〉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 내 영혼이 †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에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후렴〉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 당신께 매달리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3. 레지오의 기도문(마침 기도) 레지오 기도문?

(제22장 제목이 레지오의 기도문[the Prayers of the Legion]임. 마침 기도인 ‘레지오 기도문’[the Legion Prayer]는 영어본에서는 구분됨.)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지켜 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

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 주소서.

●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여,

○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다만 주회 때에는 이를 브레시디움 이름으로 바꾼다.〉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미카엘과 성 가브리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모님의 천상 군단, 모든 천사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세례자 성 요한,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주님, 마리아의 깃발 아래 모여 봉사하는 저희에게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마리아께 대한 굳은 신뢰심을 주소서. 이로써 저희는 세상을 정복하렵니다. 사랑으로 불타는 힘찬 믿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이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지향으로 저희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이웃 안에서 항상 주님을 뵈고 섬기렵니다. 바위와 같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이 튼튼한 믿음을 통하여 삶의 십자가와 노고와 실패 속에서도 평온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렵니다. 저희 힘을 북돋우는 용감한 믿음을 주소서. 이 용감한 믿음에 힘입어,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큰일을 서슴지 않고 떠맡아 완수하렵니다. 저희 레지오의 불기둥이 될 믿음을 주소서. 이 믿음으로써 저희가 한데 뭉쳐 나아가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불을 온 누리에 밝히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있는 모든 이를 깨우치렵니다. 또한 미지근한 이들을 열정으로 불태우고, 죄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어나게 하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평생 싸움이 끝난 다음, 저희 레지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 세상을 떠난 저희 레지오 단원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곧 이어 사제의 강복을 받는다. 사제가 불참한 때는 성호경만 바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의 믿음은 모든 사람과 모든 천사들의 믿음보다 뛰어나셨다. 성모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드님을 보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셨다. 아드님께서 헤로데의 박해로부터 몸을 피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그분께서 왕중의 왕이시라는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다. 그 아드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그분께서 영원한 존재이심을 믿으셨다. 가난하여 일상 용품마저 없이 지내시는 것을 보고도 그 아드님께서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으셨다. 아드님께서 짚더미 위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도 그분께서 바로 모든 권능을 지니신 분이심을 믿으셨다. 한마디 말씀조차 없으셨음에도 성모님은 그분께서 영원한 지혜 그 자체이심을 믿으셨으며, 아드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분께서 바로 낙원의 기쁨이심을 의심치 않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어 온갖 모욕을 당하며 돌아가실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렸지만, 성모님은 아드님께서 하느님이셨다는 믿음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셨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St. Alphonsus Maria de Liguori)

[이 인용문은 레지오 기도문의 일부가 아님.]

제23장 레지오 기도문은 변경하지 못한다

레지오의 기도문은 변경할 수 없다. 기도문 중에서 성인께 대한 호칭 기도 역시 국가나 지방의 성인 또는 어느 특정 성인을 추가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한 교체나 추가가 거론될 만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규정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이미 가장 큰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규정이다. 레지오의 모든 규정을 만든 나라가 아일랜드이고, 아일랜드의 주보(主保)인 파트리치오 성인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왜 이 같은 희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쉽게 납득하게 될 것이다. 특정 성인께 대한 호칭 기도를 용인하는 것 그 자체는 레지오 단원이 공통적으로 바치는 기도문을 크게 달라지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는 레지오 조직 체계를 흐트러지게 할 썩이 들어 있어, 레지오로서는 그러한 어린 썩마저도 염려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레지오의 정신은 그 기도문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레지오는 세상 어디에서든지 레지오의 깃발 아래 모여 봉사하고 있는 모든 단원들이 정신과 마음과 규칙과 실행에서 완전히 일치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레지오의 기도문을 어느 언어로 바치든 간에 가장 엄격하게 통일된 형태로 바침으로써 단원들이 이루어야 할 그러한 일치의 표본이 되어야 함은 적합한 일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이듯 또한 로마의 자녀이다.”(성 파트리치오 St. Patrick)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제가 간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은총을 주소서.”(성 토마스 모어 St. Thomas More)

제24장 레지오의 수호 성인들

1. 성 요셉

레지오의 기도문에는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께 대한 호칭 기도 다음에 요셉 성인(St. Joseph)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요셉 성인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성모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요셉 성인은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주요하고도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셨다. 성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요셉 성인은 성가정 안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똑같은 임무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이 신비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위하여 지금도 수행하신다. 요셉 성인은 교회의 존재와 활동이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지탱해주신다. 따라서 레지오 역시 이 성인의 돌보심에 의존하고 있다. 요셉 성인은 아버지의 친밀함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지극히 돌보아주신다. 요셉 성인의 돌보심은 오로지 그 영향력에서만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보살핌에 다음가기에 레지오는 이 성인의 돌보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요셉 성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이 성인이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쏟으시는 헌신을 반영하는 자세로 성인의 사랑에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예수님과 성모님도 늘 요셉 성인에 대해 마음을 쓰셨고, 성인이 두 분을 모시느라 쏟은 온갖 정성스러운 노력에 대하여 성인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계셨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도 요셉 성인을 언제나 정성껏 모셔야 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은 3월 19일이다.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은 5월 1일이다.

“역사 안에서의 예수님의 삶과 교회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삶을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여러 교황들이 요셉 성인을 교회의 수호자로 선언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시대와 방법은 변했더라도 요셉 성인의 임무는 늘 동일하다. 요셉 성인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호자로서 수행하는 사명은 지상에 계실 때 수행하셨던 사명과 다를 바 없다. 나자렛 시대 이후 하느님의 가족은 꾸준히 불어나 땅 끝까지 퍼져 나갔다. 요셉 성인의 마음은 이 새로운 가족의 아버지로서의 차원에까지 확대되었고, 이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속하면서도 능가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섭리는 변함이 없고, 한번 계획하신 일을 다시 생각하시거

나 임의로 바꾸지도 않으신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한결같고 질서정연하며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다. 예수님의 양부이신 요셉 성인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양부, 즉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의 양부이시기도 하다.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배필이신 요셉 성인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비로이 태어나고 있는 동안 성모님과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기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즉 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마리아의 군사들은 성가정이라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의 가장이셨던 요셉 성인에게 특별히 보호해 주시라고 마땅히 청하고 있다.”(수에넨스 추기경 Cardinal L. J. Suenens)

2. 성 요한 사도

복음서에서 성 요한 사도(St. John, the Evangelist)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 묘사되어 있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의 본보기로 등장한다. 성인은 끝까지 충실하게, 예수 성심이 고통을 멈추고 창에 찔릴 때까지 그 성심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 후 성인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의 본보기로 등장한다. 성인은 마치 천사와도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몸소 하시던 일들을 대신 말하였으며, 성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도 아들로써의 사랑을 꾸준히 해드렸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에는 복되신 어머니께 요한이라는 아들을 마련해 드리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성 요한 사도 안에서 주님께서 온 인류를 지목하셨고, 그중에서도 신앙을 통해 당신을 따르게 될 사람들을 지목하셨다. 이와 같이 성모님은 인류의 어머니로, 그리스도 자신이 그 맏아들인 수많은 형제들의 어머니로 선포되셨다. 요한 성인은 이처럼 새로이 자녀가 되는 이들을 대표하는 자였고 상속을 물려받은 첫 번째 자녀였다. 그리고 자신을 뒤따르게 될 이들의 본보기이자 레지오가 가장 애정 어린 공경을 드려야 할 성인이 되셨다.

요한 성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였으며 교회가 펴는 봉사에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사도이자 복음사가였으며, 순교자가 되는 공덕도 쌓았다.

요한 성인은 성모님의 사제였다. 그 때문에 요한 성인은 성모님을 생생하게 본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레지오 마리아 조직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레지오의 사제들의 특별한 수호성인이다.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은 12월 27일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3.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특정 성인이나 지역의 수호성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복된 그리농 드 몽포르를 포함시키는 것은 얼핏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레지오 발전에 이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성인이 없다는 것이다. 레지오 마리아 교본은 이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고, 레지오의 기도문들은 이분이 하신 바로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분은 사실상 레지오의 스승이므로 레지오가 이 성인에게 간구하는 것은 거의 도의적인 의무이다.”(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성인의 이름을 호칭 기도에 넣기로 한 레지오의 결의문)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사제는 1947년 7월 20일에 시성되었으며, 기념일은 4월 28일이다.

“성인은 수도회 창립자일 뿐 아니라 선교사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교사 그 이상이었던 분이다. 성인의 또 다른 측면, 즉 신학자와 박사로서 그 이전까지 아무도 착상하지 못한 마리아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은 성모 신심의 근원을 그토록 깊이 있게 탐구하였고, 성모 신심의 지평을 그토록 광대하게 확장시켜줌으로써, 마리아와 관련하여 현대에 일어난 모든 발현이나 표명들, 즉 루르드로부터 파티마에 이르는 성모 발현과 원죄 없으신 잉태에 관한 교리 확정에서부터 레지오 마리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안내해줄 수 있었다. 성인 자신이 전령이 되어 하느님의 나라는 마리아를 통하여 도래할 것임을 알려주었고, 성인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은 때가 왔을 때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가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 가져다주실 것임을 예고하였다.”(훔데리고 테데스키니 추기경 Federigo Cardinal Tedeschini, 성 베드로 대성전 주임 사제 : 1948년 12월 8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행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동상 제막식 강론)

“나는 두렵하게 내다봅니다. 성난 짐승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 이 소책자와 이 소책자

를 쓰는데 성령께서 사용하신 나를 그 끔찍한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어두컴컴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껍데 속에 이 소책자를 묻어버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성난 짐승들은 이 소책자를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까지도 공격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할 때에 나에겐 용기가 솟아오르고 크게 성공하리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가장 위태로운 다가울 시대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용감무쌍한 남녀 병사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단이 일어나 악마와 세속과 타락한 본성과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St. Louis-Marie de Montfort 1716년 선종 :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4. 대천사 성 미카엘

“성 미카엘은 천상 궁정에서 으뜸가는 대천사이지만, 성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성모님이 공경받으시도록 하는 일에 가장 열성적이며, 성모님의 뜻에 따라 성모님의 종들 가운데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는 영예를 누릴 수 있기를 늘 기대하면서 대기하고 있다.”(성 아우구스티노 St. Augustine)

성 미카엘은 언제나 선택된 백성의 수호자였다. 처음에는 구약의 선택된 백성이 그리고 이후에는 신약의 선택된 백성이 성 미카엘의 보호를 받았다. 그는 교회의 충실한 수호자로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의 임무가 유대인들이 등을 돌렸다고 소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임무는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과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레지오는 성 미카엘 대천사 밑에서 봉사한다. 그에게서 영감을 받은 레지오는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계약을 맺으신 유다 백성들이 되돌아오도록 애정을 기울여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주님 군대의 장수’(여호 5,14)인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은 9월 29일이다.

“계시에 따르면, 영광의 빛에 싸여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천사들은 인류 구원 역사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정하신 순간마다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종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히브 1,14) 라고

물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를 믿고 가르치며, 성경에서 우리는 선한 천사들이 맡은 임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갈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6년 8월 6일 일반 알현에서)

5. 대천사 성 가브리엘

어떤 전례서에서는 성 미카엘과 성 가브리엘 두 대천사를 함께 묶어, 천상의 귀공자이며 용맹한 투사, 천상 군단의 지휘관, 천사들의 우두머리,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시종, 우리 인간을 지켜 주는 수호자이며 안내자로 칭송하고 있다.

성 가브리엘은 주님 탄생 예고(the Annunciation)의 대천사이다. 기록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달한 것도, 삼위일체의 신비를 처음으로 인간에게 알려준 것도,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전한 것도 바로 성 가브리엘 대천사였다. 또한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가 선포되고 묵주기도의 첫 번째 신비의 영감을 준 것도 그를 통해서였다.

미카엘 대천사가 유대인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가브리엘 대천사의 경우에는 회교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회교도들은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 준 자가 가브리엘 대천사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비록 근거는 없지만, 가브리엘 대천사에 대한 회교도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가브리엘 대천사 역시 적절한 방법으로, 즉 그가 지키고 있던 그리스도교의 계시에 대하여 그들을 일깨워줌으로써, 그들의 관심에 보답하려고 힘쓸 것이다. 그러나 가브리엘 대천사 혼자 힘만으로는 회교도들을 회두시킬 수는 없다. 언제나 우리 인간의 협력이 자기 편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회교 경전인 코란(Koran)에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기묘하게도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면서 거의 복음서에서와 같이 등장하고 계시나 두 분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자신들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내세울 수 있도록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회교도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레지오는 이와 같은 일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회교도들이 레지오 단원들을 따듯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코란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나서서 덧붙여 설명해 주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다.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의 합동 축일은 9월 29일이다.

“성경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품의 천사 하나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파견되어 마리아께 강생의 신비를 알려 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심으로 모든 천사들에 대한 통치권과 힘과 지배권을 가지실 것이기에 천사는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한다.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 『하늘의 모후』(Ad Coeli Reginam)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고귀한 임무를 알리는 하늘나라 최초의 사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쓴다. 성 가브리엘은 하느님을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호자로 공경 받고 있다. 그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마리아께 전달하였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온 인류를 대표하셨고 그는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였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이 두 분의 대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일으켜 세우는 조약이 맺어졌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대화를 나눈 그 천사는 얼마나 훌륭한 천사였을까! 또한 그가 맡은 역할을 전달받은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수동적인 역할로 축소해버리는 일은 얼마나 잘못된 일일까! 가브리엘 대천사는 모든 사정을 흰히 깨우치고 있었고 천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지략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는 마리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마리아가 하신 모든 질문에 답변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대변인이자 하느님께서 믿고 계시는 천사였기 때문이었다. 가브리엘 대천사와 성모님의 만남으로부터 창조사업이 새롭게 이루어졌다. 첫 번째 하와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새로운 하와가 다시 일으켜 세웠고, 새 아담은 천사들도 포함된 신비체의 머리로서 인류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던 천사들의 명예까지도 회복시키셨다.”(미카엘 오캐롤 신부 Dr. Michael O’Carroll C.S.Sp.)

6. 성모님의 천상 군단인 모든 천사들

“레지나 안젤로룸(Regina Angelorum)! 천사들의 모후!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언제나 천사들의 군단에 둘러싸여 호위를 받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너무나 황홀하여 마치 하늘나라를 미리 보는 듯하구나!”(교황 요한 23세)

“성모님은 하느님 군단의 총사령관이시다. 천사들은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성모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병사들이다.”(부돈 / Boudon : 천사들)

레지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레지오의 기도문에는 천사들의 도움을 청하는 다음과 같은 호도(호칭 기도)가 들어 있었다.

대천사 성 미카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우리의 거룩한 수호 천사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초창기에는 천사들과 레지오의 밀접한 관계가 지금처럼 뚜렷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레지오가 이 기도문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졌는데, 이는 천사들이 바로 레지오의 싸움을 지원하는 하늘나라의 동맹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동맹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레지오의 각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에게는 곁에서 치열한 싸움을 거들어 주는 수호천사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싸움은 레지오 단원보다 오히려 그 수호천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 수호천사는 이 싸움에서 무엇이 시급한 문제인지 더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하느님의 영광과 레지오 단원이라는 불멸의 영혼이 지닌 가치이다. 그래서 수호천사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으며 한결같은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싸움에는 다른 천사들 또한 관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레지오가 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들을 돕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천상 군단 전체가 싸움터로 서둘러 달려온다. 우리 레지오가 벌이고 있는 전투는 태초부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맞서 천사들이 벌이고 있는 주요한 싸움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인상 깊은 지위를 천사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수백차례나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인간이 벌이는 싸움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인간을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중요한 시점에 개입하고,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라는 구절이 반복된다. 모두 9품으로 분류되는 천사들은 다양한 수호 임무를 띠고 있다. 그들은 개인, 장소, 도시 또는 나라를 수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때로는 동료 천사들을 지켜주기도 한다. 성경에 따르면 이교도 왕국들까지도 그들만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한다(다니 4,10,20; 10,13). 천사의 품급은 천사, 대천사, 지품천사, 치품천사, 역품천사, 능품천사, 좌품천사, 주품천사 및 권품천사이다.

따라서 천사들은 한 무리로서 또는 개별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면서, 공군이 지상군과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레지오가 초기에 사용하던 천사들에 대한 호칭 기도는 천사들이 이처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호 역할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가) 호칭 기도를 좀 더 나은 형태로 고친다.

(나) ‘레지오’(군단)라는 단어를 천사와 연관시킨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려 온 우리로부터 위협받고 계실 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레지오)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마태 26,53)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주님께서 몸소 ‘레지오’라는 단어를 천사들에게 적용하셨고, 당신 입으로 이 단어를 말씀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해주셨다.

(다) 호칭 기도에 성모님의 이름을 넣는다. 성모님은 천사들의 모후이시다. 성모님은 진정 천상 군단의 총사령관이시므로, ‘천사들의 모후’라는 뜻깊은 칭호로 인사드리는 것은 우리 레지오가 누리는 새로운 은총이 될 것이다.

모든 레지오 조직을 통하여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레지오는 1962년 8월 19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양식의 호칭 기도를 채택하였다.

“성모님의 천상 군단, 모든 천사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수호천사 기념일은 10월 2일이다.

‘필란젤리’(Philangeli)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천사들에 관한 지식과 천사들에 대한 신심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며, 본부는 영국 미들섹스 하로우 월드 시 (129 Spencer Road, Harrow Weald, Middlesex HA3 7BJ, England)에 소재하고 있다.

“성모님께 ‘천사들의 모후’라는 칭호를 드리는 것을 단지 명예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후로서의 성모님의 고귀한 직무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보편적 지배권을 행사하신다. 성모님이 왕이신 그리스도와 어떤 방식으로 공동 지배권을 행사하시는지에 관하여 아직 완전한 신학적 설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후로서의 성모님의 직무는 일종의 행동 원리이며, 그 행동에서 파생되는 효과는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에 두루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성모님은 착한 영혼들을 다스리시고 악한 영혼들을 꼼짝 못 하도록 만드신다. 성모님을 통하여 인류 공동체와 천사 공동체가 끊을 수 없는 동맹 관계를 맺으며, 이 동맹 관계에 의하여 모든 피조물은 성삼위의 영광이라는 진정한 목표로 인도된다. 성모님이 천상의 모후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방패가 된다. 우리의 어머니시며 보호자이신 성모님은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의 제국을 흐트러뜨리고 파괴하는 일에 성모님이 당신 아드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심을 의미한다.”(미카엘

7. 성 요한 세례자

1949년 12월 18일에 이르러서야 레지오의 수호성인들 가운데 성 요한 세례자(St. John, the Baptist)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다. 레지오의 수호성인들 가운데 요셉 성인을 제외하고는 성 요한 세례자만큼 레지오라는 신심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은 없기 때문이다.

(가) 성 요한 세례자는 모든 레지오 단원들의 모범이었다. 주님의 선구자로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 곧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는 굳센 힘과 신심의 표본이었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사명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나) 더구나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에 의하여 양성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모님이 친히 성 요한 세례자를 양성하시어 사명 수행을 준비시키셨다. 암브로시오 성인(St. Ambrose)은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시어 오랫동안 머무르신 주된 목적은 이 어린 대예언자를 양성하고 그에게 사명을 정해 주시는 데에 있었다고 천명한다. 레지오는 성모님이 세례자 성 요한을 양성하신 순간을 단원들이 매일 의무적으로 바치는 레지오의 핵심 기도인 까떼나를 통하여 기념한다.

(다)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는 성모님이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성 요한 세례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 요한 세례자는 처음부터 레지오 단원들과 단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 형태로 수행하는 방문 활동을 비롯하여 단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특별한 수호자로 등장하였다. 물론 레지오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성모님의 중재 직무에 협력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라) 성 요한 세례자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주님의 사명을 재현하려는 목적의 조직체라면 어느 조직체에 서든지 그 구성원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선구자인 요한 세례자는 여전히 필요하다. 만일 예수님과 성모님을 소개해주기 위하여 그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두 분은 결코 무대로 나오지 않으셨을 지도 모른다. 레지오 단원들은 성 요한 세례자가 맡은 이 특별한 역할을 깨달아야 하며, 성인이 자신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인을 신뢰하여야 한다. “만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오시는 분’이라면, 성 요한 세례자는 언제나 예수님에 ‘앞서 오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강생의 경륜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다니엘루 Daniélou)

(마) 성 요한 세례자의 호칭이 들어가기에 적당한 자리는 마침 기도에서 천사 다음이다. 따라서 마침 기도의 호칭 기도를 통하여 묘사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레지오는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불기둥으로 드러내시는 성령의 그느르심 아래에서, 천사들의 군단과 그 지휘자인 성 미카엘과 성 가브리엘 대천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전진한다. 척후병 즉 선구자인 성 요한 세례자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영원토록 수행하면서 레지오에 앞서 가고, 레지오의 두 장군인 성 베드로와 바오로가 그 뒤를 따른다.

(바) 전례력에 따른 성 요한 세례자 요한 성인의 축일은 두 개다. 탄생 대축일은 6월 24일이고, 수난 기념일은 8월 29일이다.

“나는 성 요한 세례자의 신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믿는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요한 세례자의 정신과 덕목이 들어가 주님을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며, 울통불통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길을 곧게 내고 평탄하게 한다. 오늘날까지도 성 요한 세례자의 정신과 덕행은 구세주 주님의 오심을 앞질러 예비하는 것이다.”(오리게네스 Origen)

8. 성 베드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 성인(St. Peter)은 사도직 단체의 탁월한 수호자이다. 그는 초대 교황이었고, 역대 교황으로부터 현 교황에 이르기까지의 빛나는 계보를 대표하며, 현재로서는 성부를 대표한다. 우리는 베드로 성인에게 호칭 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권위와 규율과 일치의 원천인 로마에 대한 레지오의 충성을 다시 한 번 표현한다.”(레지오가 성 베드로를 호칭 기도에 넣기로 결정한 결의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사도 대축일은 6월 29일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8-19)

9. 성 바오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려면 바다처럼 크고 넓은 영혼을 가져야 한다. 세상을 회두시키려면 세상보다 더 큰 영혼을 지녀야 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친 빛이 갑자기 잔신을 에워싼 날부터 바오로 성인(St. Paul)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빛이 그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자,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바오로 성인을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은 그의 업적을 말해 준다. 사형 집행인의 칼날이 그의 굴하지 않는 영혼을 하느님께로 보내는 순간까지 그는 지칠 줄 모르고 활동하였다. 그리고 성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가 쓴 글이 남아 그의 사명을 지속하였고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바오로 성인을 베드로 성인과 함께 묶어 기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리고 위대한 이 두 사도가 순교를 통하여 함께 로마를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합당한 일이기도 하다.

교회는 이 두 성인의 축일을 같은 날(6월 29일) 지낸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대인들에게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 돌질을 당한 것이 한번,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2코린 11,23-27)

제25장 레지오의 그림

1. 이 교본의 표지에는 레지오의 그림의 복제화가 실려 있다. 원본은 더블린의 한 유능한 젊은 화가가 레지오에 봉헌하기 위하여 그렸다. 봉헌하는 마음으로 만든 여느 작품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이 작품은 비상한 아름다움과 영감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축소된 복제화에서조차 그러한 아름다움과 영감이 느껴진다.

2. 이 그림에는 레지오 신심의 개요가 놀랄 만큼 완벽하게 나타나 있다.

3. 이 그림에는 레지오의 기도문이 한눈에 드러나 있다. 시작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성령께 대한 호칭 기도와 본기도 그리고 묵주기도는, 비둘기 형상의 성령께서 마리아 위에 드리우시면서 빛과 당신 사랑의 불로 가득 채우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시대 가운데 정점을 이루는 순간을 레지오는 시작 기도으로써 찬미한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은총의 어머니가 되셨다. 그리고 마리아의 자녀들인 레지오 단원들은 묵주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을 마리아와 결합시키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군단 하나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하신 교황 비오 9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또한 이 그림에는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로로 삼아 다시 한 번 내려오심으로써 교회를 인준해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암시되어 있다.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지를 통하여 교회를 공포하시며,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할 사도직의 불꽃으로 교회를 가득 채워주셨다. “새로 태어난 교회가 구세주의 영을 풍부히 받게 된 것은 바로 마리아의 가장 강력한 전구 때문이었다.”(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 110항) 성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도직의 불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타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4. 까떼나(Catena)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 그림의 사방 둘레에 고리로 그려져 있다. 성모님을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분’으로 등장하시도록 그린 그림은 까떼나의 후렴에 참으로 어울리는 그림이다. 성모님이 빛나는 별 하나를 이마에 지니신 모습은 성모님이 참된 샹별이시며, 구원의 은총의 빛 속에 처음부터 휩싸여 계셨고 구원의 새벽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낸다.

‘마니피캣(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은 그 첫 구절인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Magnificat Anima Mea Dominum)’를 성모님의 머리 위에 불꽃 색깔의 붉은 라틴어로 써넣어, 주님을 찬미하는 생각을 성모님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마니피캇은 성모님의 겸손하심이 거둔 승리를 노래한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자렛의 겸손한 동정녀에게 의지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느님께서 성모님과 일치하고 있는 신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완수하고 계신다.

까떼나의 계와 응은 레지오의 으뜸가는 신심 기도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관한 것으로, 성모님이 뱀의 머리를 바수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레지오의 그림의 둘레에 자리한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리라.”①(창세 3,15)는 말씀도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 한마디로 이 그림은 성모님과 뱀 사이, 성모님의 자녀들과 뱀의 후손들, 즉 레지오와 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싸움에서 악의 무리가 멸망하여 흠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까떼나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인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기도이다.

이 그림의 맨 위 부분에는 유익한 모든 선물을 베푸시는 성령께서 자리하고 계시고, 아래 부분에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지구가 온 세상의 모든 이를 예표하면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과 지구 사이에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모든 은총을 중재하고 베풀어 주시는 통로와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신다. 그러나 성모님은, 성 요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성심에 기대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가장 충실한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림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새겨진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②(요한 19,26-27) 라는 말씀은, 골고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성모님이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5. 마침 기도는 레지오의 그림의 한 획 한 획에 반영되어 있다. 레지오는 수많은 단원들이 성모님의 지휘를 받아 성모님의 깃발 아래 모여 “오른손에는 십자가와 왼손에는 묵주를 들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어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행 극기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 전열을 갖추어 전진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단원들은 자신들의 모든 본능과 행위를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어 그리스도 왕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감히 도전하고 또 행하게 해줄 수 있는 신앙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한 신앙은 불기둥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불기둥은 모든 단원들의 마음을 녹여 한 덩어리로 만들고,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을 전진할 때마다 밖으로 내던져 단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안내해준다. 또한 이 불기둥은 성모님이다. 그림의 왼쪽 밑 가장자리에 새겨진 “행복하십니다. …… 믿으신 분!”③(루카 1,45)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성모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당신을 복되다고 일컫는 사람들 위로 꺼지지 않은 주 하느님의 광채가 비출 때까지,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6. 레지오의 기도문은 단원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수고에서부터 시작해 영원한 점호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기억하면서 끝을 맺는다. 충실한 단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소집되어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불멸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다.

그 사이에 레지오는 싸움을 끝낸 이들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그리고 동료 단원들의 탄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구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에집트에서 탈출시키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탈출 13,21)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적혀 있다. 한 번은 구름으로, 한 번은 불로 변하는 이 신비로운 기둥이야말로 성모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성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행하시는 여러 가지 임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St. Alphonsus Maria de Liguori)

① “Inimicitias ponam inter te et mulierem et semen tuum et semen illius ; ipsum conteret caput tuum.”(창세 3,15)

② “Mulier, ecce filius tuus : … Ecce mater tua.”(요한 19,26-27)

③ “Beata quae credidit.”(루카 1,45)

제26장 뗏세라

레지오의 모든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에게는 레지오의 기도문과 레지오의 그림이 들어 있는 뗏세라(Tessera)를 지급해야 한다.

라틴어에서 뗏세라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언제든 지 서로 알아보게 하기 위해 나누어 지냈던 신표(信標) 또는 비표(秘標)를 일컫는 말이다. 군사 용어로는 로마 군단 내에서 통용되었던 암호가 기재된 네모난 표찰을 가리켰다.

레지오 마리아에서는 이 용어를 레지오의 기도문과 레지오의 그림이 실린 낱장의 인쇄물을 가리키는 데 쓰고 있다. 뗏세라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져 있다.

(가) 세계의 모든 레지오 조직 내에서 두루 통용된다.

(나) 레지오의 참된 암호인 기도문을 싣고 있다.

(다) 모든 단원들 사이의 일치와 형제애를 드러내는 비표이다.

이와 같은 레지오의 범세계적인 보편성은 레지오 조직의 특징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10여 개의 라틴어 용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레지오 조직 내에서 상호 교류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라틴어 용어들이 레지오에 이질감을 준다는 반대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용어들은 이제 레지오의 용어로서 뿌리를 내렸다. 유익하고 특색 있는 이러한 표현 수단을 레지오에게서 앗아간다면 중대한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인 우리 모두는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도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형제들의 팔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구원과 은총을 얻기 위하여 모두 하나로 뭉칠 것을 특별히 요구하신다. 기도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목소리를 결합하여 하나 되게 해준다.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바치는 기도 속에 우리의 힘이 들어 있고, 그 힘은 막강하여 아무도 당해 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어서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소망을 한데 뭉치도록 서두르자. 이 모든 것은 각기 스스로의 힘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서로 뭉치어 하나 될 때 누구도 당해 낼 수 없는 더욱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라미에르 Ramière)

제27장 레지오의 백실리움

레지오의 단기

레지오의 백실리움(Vexillum Legionis)은 로마 군단의 군기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이 군기의 맨 위쪽에 놓여 있는 독수리는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로 바꾸었다. 비둘기 아래의 가로대에는 Legio Mariae(레지오 마리아)라는 우리 단체의 이름이 적힌 표장이 있다. 이 가로대와 깃대 사이에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나타내는 타원형 구조(기적의 패)가 자리 잡고 있으며, 장미와 백합이 그 사이에 장식되어 있다. 깃대는 지구본 위에 세워져 있고, 지구본 아래쪽에는 네모진 받침대가 있어서 백실리움을 탁자 위에 세울 수 있다. 단기의 전체 구도는 성령께서 성모 마리아와 그 자녀들을 통하여 활동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차지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 레지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제반 양식에는 반드시 백실리움의 표장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나) 레지오의 모든 공식 회합이 열릴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레지오의 소제대를 차려야 하며, 이때 백실리움의 위치는 성모상의 앞쪽으로 약 15cm(6인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약 15cm(6인치)이다. 탁자 위에 세워 놓는 백실리움의 높이는 받침대를 포함하여 관례상 약 32cm(12¾인치)이다. 백실리움 사진은 224쪽과 225쪽 사이에(*최종적으로 페이지 확인 필요) 실려 있다. 금속과 마노석으로 만들어진 백실리움은 끈칠리움이나 세나투스에서(*영어판에는 세나투스에 대한 언급 없음) 구입할 수 있다.

(다) 대형 백실리움은 행렬이나 아치에스 행사 때 사용한다. 대형 백실리움의 높이는 2m(약 6피트 반)이며, 그중 지구본 아래쪽으로 약 60cm(2피트) 정도의 깃대를 세운다. 이 아래쪽 깃대를 제외한 지구본까지의 백실리움 본체 부분은 탁자용 백실리움의 12배 정도의 크기(? *거의 4미터가 됨) (다음 쪽에 실린 도안을 12배로 확대하여)로 만들면 된다. 아치에스 행사 때나 들고 다니지 않을 때는 받침대(단기의 일부가 아님)에 세워 놓아야 한다.

대형 백실리움은 끈칠리움에서 공급하지 않으나 각 지역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이 단기를 좀 더 훌륭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평의회나 브레시디움은 나무 이외의 재료를 쓸 수 있으며, 이 도안을 바탕으로 하여 얼마든지 예술적 작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 탁자용 백실리움은 저작권 보호가 되어 있으므로, 끈칠리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작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레지오 마리아의 단기인가!” (교황 비오 11세)

레지오의 백실리움

레지오의 단기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사제는 성모님을 성령으로부터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이러한 두 분의 일치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을 완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성령에 대한 교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로렌틴 Laurentin)

제28장 레지오의 관리(통치?)

1. 모든 관리(통치?)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

1. 지역에서는 중앙에서는 레지오의 통치는 해당 평의회가 담당한다. 평의회가 관할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레지오 마리아의 일치를 확립하고 본래의 이념을 수호하며, 레지오 마리아의 공인 교본에 명시되어 있는 레지오의 정신과 규정 및 관례를 보존하고 조직을 확장하는 일이다.

레지오의 발전은 해당 평의회가 얼마만큼 노력을 쏟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 모든 평의회는 정기적인 회합을 가져야 하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를 열어야 한다.

3. 평의회는 기도문, 제대 차림 및 회합 순서는 브레시디움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평의회는 (가) 회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나) 상훈 낭독이 없으며 (다) 비밀 주머니 헌금은 임의로 결정한다.

4. 평의회는 으뜸가는 의무는 직속 상급 평의회에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5. 어떠한 브레시디움이나 평의회도 해당 직속 상급 평의회 또는 콘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 및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 없이는 설립할 수 없다.

6. 기존 브레시디움 또는 평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는 관할 교구장 주교와 콘칠리움 레지오니스에게 개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 브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해산되는 그 순간부터 레지오 마리아 조직의 일부분이 아니다.

7. 각 평의회는 교회 관할권자가 임명하는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두어야 하며, 그 임기는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른다. 영적 지도자는 평의회 회합에서 제기된 도덕과 신앙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며, 임명권자의 결정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모든 의사 진행을 잠정적으로 보류시킬 권한이 있다. 영적 지도자는 평의회 간부이며, 레지오의 모든 정당한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

8. 각 평의회는 또한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어야 하며, 직속 상급 평의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보조 간부를 둘 수 있다. 간부는 3년 임기로 선출하며, 동일 직책에 3년간 더 봉사하도록 재선출 할 수 있다. 연임으로 6년 임기를 만료한 단원은 동일 직책을 계속해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간부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첫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하는 경우, 그는 퇴임하는 날로써 3년의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퇴임한 첫 3년 임기 중의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는 동일 직책에 다시 선출되어 다시 3년 동안 봉사할 수 있 되, 이는 두 번째 3년의 임기로 간주될 것이다. 연임한 간부가 그의 두 번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하는 경우, 그는 퇴임하는 날로써 6년 간 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연임한 간부는 반드시 3년이 지난 후라야 동일 평의회의 동일 직책에 선출될 자격을 갖게 된다. 동일 평의회의 다른 직책이나 다른 평의회에서 간부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이 3년의 간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평의회의 간부는 반드시 브레시디움의 행동단원이어야 하며, 상훈을 준수해야 한다.

9. 평의회가 승격되더라도(이를테면, 꾸리아에서 꼬미씨움으로 승격되는 경우라도) 기존 간부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평의회의 간부는 해당 평의회의 정기회의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평의회 의원들 (즉, 직속 산하 브레시디움 간부, 직속 산하 평의회 간부 및 해당 평의회의 선출 간부들)이 선출한다. 모든 레지오의 행동단원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해당 평의회의 의원이 아닌 단원이 간부로 선출되면, 그는 직권에 의한 의원이 된다. 선거의 결과는 직속 상급 평의회의 초인을 받아야 하나, 일단 선출된 단원은 추인을 받을 때까지 간부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평의회는 의원들에게 선거의 실시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며, 가능하면 그 전 회합에서 알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후보자가 반드시 해당 직무의 업무를 확실히 알고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후보자들이 책임자들인지에 대하여 논평할 수는 있으나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하여야 한다. 또한 평의회의 간부들이 특정 후보자가 책임자라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를 공천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공천이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를 올바르게 실시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13. 선거의 방법은 비밀 투표이며 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는 직책 순위대로 각기 별도로 실시한다. 추천을 받은 각 후보자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동의(動議)가 있어야 하며 재청(再請)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정식으로 동의되고 재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한다. 회합에 출석해 있고 투표권을 가진 평의회 의원들(영적 지도자 포함)에게 투표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평의회 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의원은 마음속으로 정한 후보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기입한 후, 잘 접어서 개표원이 걷도록 한다. 투표 용지에 투표한 의원의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집계 결과,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절대 다수 표를 얻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선언한다. 절대 다수 표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수를 말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같은 후보자들을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표 집계 결과 역시 절대 다수 표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을 놓고 다시 한 번 투표를 실시한다. 만일 이 세 번째 투표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경우, 최소 득표자를 차례로 제외시키면서 투표를 거듭 실시하여, 한 후보자가 절대 다수 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영적 단체의 간부를 뽑는 선거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엄격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투표지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평의회 회의록에는 간부별 선거 실시 상황을 충실히 기록하여 직속 상급 평의회가 간부 승인 신청서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 실시 기록에는 (후보자가 단일 후보가 아닌 경우) 후보자별 동의자 및 재청자의 이름과 득표 수를 기재해야 한다.

14.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에서 직속 상급 평의회에 보내는 대표는 각각 그쁘레시디움의 간부들 또는 그 평의회 의원들이다.

15. 경험에 따르면, 상급 평의회가 먼 거리에 있는 산하 평의회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통신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통신원은 담당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매달 접수하는 회의록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상급 평의회 회합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원은 상급 평의회 회합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 참여하나, 해당 상급 평의회 의원들이 아니므로 투표권은 없다.

16. 단원 또는 단원이 아닌 사람들도 평의회 의원들의 허가를 얻어 회합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참관인은 회합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17. 레지오의 평의회로는 꾸리아, 꼬미씨움, 레지아, 세나투스 그리고 콘칠리움 레지오니스가 있으며, 정관에 따라 그 밖의 다른 평의회가 설치될 수 있다.

18. 각종 평의회는 라틴어 명칭은 해당 평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성모님은 레지오의 모후이시다. 성모님은 당신의 레지오의 용사들을 영광스러운 싸움으로 불러 모아 전장에서 지휘 격려하시며 몸소 진두에 서서 승리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모후께서 당신의 특별한 평의회, 이른바 레지오 마리아의 세계 평의회인 콘칠리움이 현실적으로 당신을 대표하고 당신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여 다른 모든 레지오 통치 기관을 감독하도록 마련하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조치이다.

지역 평의회들은 실질적인 대표 기관이며, 평의회가 상급으로 갈수록 대표성이 약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광범한 지역의 대표로 구성되는 중앙 평의회 정기 회합에 평의원들이 전원 참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리아, 꼬미씨움, 레지아 및 세나투스라는 명칭은 각 조직체별 특성과 지위를 나타내며, 각기 관할하는 지역의 크기를 알맞게 표현하고 있다.

19. 상급 평의회는 자신의 고유한 기능과 더불어 하급 평의회 기능을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나투스는 꾸리아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평의회 기능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개 같은 단원들이 상급 평의회와 지역 평의회 양쪽을 관리하는 일에 관계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회합으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게 된다면 그만큼 단원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급 평의회 의원들은 넓은 지역에서 뽑힌 단원들이다. 따라서 상급 평의회가 정기적으로 자주 열어야 하는 월례 회합에 전원 참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그 결과, 소규모의 열심한 단원들에게 막중한 책임과 어마어마한 양의 업무가 맡겨지게 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상당한 업무가 무성의하게 다루어지거나 아예 다루어지지 못하고 마는 일이 발생하여 레지오가 심각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상급 평의회 기능을 하급 평의회 기능과 합치게 되면 항상 높은 평의원 출석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하급 평의회 평의원들은 하급 평의회 고유한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상급 평의회 업무에도 흥미를 갖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레지오의 관리, 확장, 행정 업무 등 상급 평의회 중요한 제반 분야에 그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방법이 사실상 한 지역의 지역 평의회에 불과한 조직체에 넓은 지역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론할 수 있다.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하급 평의회의 기능도 병행하는 상급 평의회에서는 그 핵심 의원들만이 해당 지역에 속해 있으며, 상급 평의회 산하 모든 평의회들의 대표자들은 상급 평의회 회합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또 그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이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상급 평의회를 연간 네 번 정도의 회합만으로 별도 운영하자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의원들의 높은 출석률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의 정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러한 제안은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회합과 회합 사이의 긴 휴지 기간 동안, 평의회 본연의 임무는 필연적으로 간부들이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평의회는 단지 명목상으로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른 평의원들은 얼마 안 가서 책임 의식이 무디어지고 평의회 업무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된다.

더구나 것처럼 드문드문 회합을 갖는 조직체가 있다면 이는 평의회라기보다는 일종의 토론 대회와 더 유사한 것이 되어버려, 관리에 필요한 능력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그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으로 가까이 느끼는 것이 관리 능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0. 레지오 단원은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꾸리아나 또는 어느 상급 평의회와도 개인적으로 통신을 교환할 수 있다. 평의회는 이러한 통신 사항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하급 평의회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처리해야 마땅하다. 단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체, 곧 브레시디움이나 또는 꾸리아를 통하여 상급 평의회와 통신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통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것은 신의 없는 행위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간부들이 상급 평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때때로 움켜쥐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통신 수단이 열려 있지 않는 한 해당 상급 평의회는 알아야 할 일을 알지 못하게 된다. 각급 평의회는 관할 지역 내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없이는 평의회를 적절히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급 평의회의 이 ‘알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21.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직속 상급 기관의 기금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34장 [브레시디움 간부들의 임무]와 제35장 [기금]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레지오 평의회의 진정한 본질은 그 업무와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자유롭게 토의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평의회는 단순히 감독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간부들을 교육하는 학교이다. 그런데 만일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거나 레지오의 원리나 이상 등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러한 논의는 모든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평의회도 불과 몇 명의 배우가 말없이 쳐다만 보는 관객을 상대로 공연하는 극장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평의회는 참석한 평의원 전원이 기여를 할 때에만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한다. 그러므로 평의원이 평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평의원은 평의회에서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평의회에서 남의 발언을 들으면 얻는 것은 있겠지만, 막상 자신이 평의회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적극성을 잃으면 기억력마저 무디어진다는 심리학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평의회에서 남의 말을 듣기만 하는 평의원은 아마도 마음이 텅 빈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평의회에서 입을 다물고 앉아 있는 것이 습관화된 평의원은 사람의 뇌나 몸 안의 활성화되지 못한 세포와 같다. 그러한 세포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대주지 못하고 존재 목적을 거부하여 결국 생명마저 위태롭게 한다. 레지오에 그토록 봉사하심을 바라면서도 레지오를 그러한 위험에 떨어지게 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부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부패 현상은 즉시 번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평의원도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평의원은 단순히 출석해서 남의 발언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여 조직체가 활성화되도록 힘껏 공헌해야 한다. 요컨대 **모든 평의원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발언해야 한다.**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불필요한 생각들의 방해로 발언하려는 마음이 꺾이고 만다. 그러나 이런 주저하는 마음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며, 레지오가 단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나 요구하고 있는 용기가 바로 이때에 그 일부나마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즉,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평의원들이 발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다. 이를테면 몇 안 되는 목소리 큰 평의원들만 발언하고 대다수의 다른 평의원들은 토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의 침묵이 때때로 소수의 웅변에 의하여 가려지고 만다. 더구나 단장이 발언을 지나치게 독차지함으로써 다른 평의원들의 발언을 억눌러 버리는 일이 너무 잦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발언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발언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상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어떤 단장

은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은 듯한 침묵만 흐르게 될 것이라고 변명한다. 아마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침묵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침묵이야말로 평의원들로 하여금 자신도 이제 무언가 발언을 해서 평의회에 활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순간은 다소 소심한 평의원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야 할 때이며, 무엇을 이야기한다 해도 결코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는 순간이 된다.

단장 자신은 단 한마디라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고한 신조로 삼아야 한다. 단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23.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발적인 발언을 삼가야 한다. 무턱대고 질문을 하지 말고 답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면서 질문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함께 보여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되어 있는 발언은 파괴적인 침묵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24. 어떤 레지오 회합에서나 일을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찬성을 얻어야 하며, 당장 표결에 부쳐 결판을 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든 레지오 회합의 기본 방침이 되어야 한다. 일을 성급하게 결정하면 소수의 진 편과 다수의 이긴 편으로 갈라지게 되고 반감이 생겨 의견의 차이만 굳어질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일을 결정하면 모든 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일이 처리될 때, 진 편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며 이긴 편 역시 승리와 함께 잃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의견의 차이가 드러났을 때, 틀림없이 다수 편에 든다고 생각되는 평의원들은 끝까지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며, 따라서 성급한 표결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통탄할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다음 회합 때까지 그 결정을 미루고, 또한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루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평의원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구하고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이가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만 처리한다면 대개의 경우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5. 의견 차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브레시디움에서조차 조화를 이루도록 조심해야

한다면, 평의회에서는 얼마나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평의원들은 대개 서로 가깝게 일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함께 일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나) 의견의 차이는 늘 있는 일이며,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평의회에 주어진 주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고 단원의 수준을 높이는 일 또는 규율에 관련된 제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다루는 모든 안건은 좋지 않게 발전될 수도 있는 의견 차이를 필연적으로 일으킬 소지가 있다.

(다) 평의회의 의원 수가 많다 보면, 일은 훌륭하게 잘해 내지만 ‘고집쟁이’로 불릴 만한 유형의 평의원들이 얼마간 섞여 있게 마련이다. 이런 평의원들은 회합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들은 웬만큼 능력이 있으므로 추종자도 거느리고 있다. 그들은 논쟁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적대감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산하 조직체들에 모범이 되어 상호 우애의 정신을 실천하고 모든 업무를 질서 있게 처리하는 실례가 되어야 할 평의회가 오히려 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나쁜 표본을 보여주는 조직체로 전락하고 만다. 그 결과 인체의 심장과도 같은 평의회가 치명적인 독(毒)을 뱉어내어 전체 레지오의 혈관에 흘러보내게 되는 것이다.

(라) 그릇된 충성심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이를테면, 이웃 평의회나 상급 평의회가 권한을 남용한다든지 또는 일 처리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식의 공격적인 발언이 그것이다(이런 종류의 공격 거리를 만들어 내어 남의 공감을 얻어내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가!)

(마)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각 개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걱정이나 고집, 자만심, 불신감 등이 불타오르듯 강렬해져서 모임의 한 구성 요소처럼 되어 버린다. 신자들만의 종교적 집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면 얼마 안 가서 인간 본연의 약점을 드러내고 만다. 그리하여 그들이 보여 주는 정신이나 행위, 발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등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지녀야 할 순박함이나 솔직함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성 학자들이 말하는 ‘세속’이며,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이다. 이런 세속적인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민족, 직업, 평신도, 성직자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 집단이나 파벌 안에 드러나 있다.”(뉴만 추기경 Cardinal Newman : 세속의 모습)

이 글은 참으로 놀랍긴 하지만 매우 깊은 사상가에게서 나온 말이다. 나지안조¹⁾의 그레고리오 성인(St. Gregory Nazianzen)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성인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

용이 된다. 즉, ‘세속’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우리가 지닌 사랑은 약하다. 이렇게 강하지 못한 사랑은 소수의 사람들 안에서는 연고 관계, 친밀성, 우정 등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 수가 많아지고 비판과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닌 허약한 사랑은 지극히 불행한 결과를 맞는다. 베르나르도 성인(St. Bernard)도 “하느님과 사랑은 오직 하나이며 동일체이다. 사랑이 깃들지 않은 곳은 육신의 걱정과 욕정이 지배한다. 사랑의 불로 타오르지 않는 믿음의 횃불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되는 순간까지 계속 타오르지 못할 것이다. …… 사랑이 없는 참된 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레지오 단원들이 위에 인용한 성인들의 경고를 읽고 나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해도 그 효력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회합에 참석한 단원들이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정신이 약해지면 그러한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보면, 로마 군단은 장거리 진군을 할 때 천막을 치고 참호를 파고 용의주도하게 경계 태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결코 야영하지 않았다. 단지 하룻밤만을 야영할 때에도, 설사 적의 진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심지어는 평화 시에도 치밀하게 대비했다. 레지오 마리아도 이처럼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여 ‘세속’ 정신이라는 위험한 적이 레지오의 진지(회합)를 침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랑을 해치는 말씨나 태도를 몰아내고, 기도의 정신과 레지오의 신심으로 가득한 회합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적의 침략을 막는 방법이다.

“은총의 세계에도 자연 본성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애정이 있다. 즉, 은총은 초자연적인 사랑과 열성과 희망과 기쁨과 슬픔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인간 본성적 삶보다는 은총에 의한 삶을 살아가신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은총의 ‘느낌들’이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은총의 삶 속에 잠겨 있다기보다는 단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신자들과는 달리 동정 성모님은 한평생 늘 은총 속에 계셨다. 아니, 은총 속에 계셨다기보다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사셨던 동안 그 삶을 완성하는 가운데 서 계셨다.”(지비외프 Gibieuf : 십자가 밑에서 고통 받는 성모님)

2. 꾸리아와 꼬미씨움

1. 어떤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에 두 개 이상의 뵤레시디움이 설립되면 꾸리아

(Curia)라고 부르는 통치 기관을 개설해야 한다. 꾸리아의 평의원은 해당 지역의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영적 지도자 포함)으로 구성한다.

2. 어떤 꾸리아에게 고유한 직능 이외에 하나 또는 몇 개의 꾸리아를 감독하는 권한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상급 꾸리아를 꼬미씨움(Comitium)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평의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 평의회가 개최하는 모든 회합은 관련 꾸리아의 대표자들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꼬미씨움 회합으로 간주된다.

꼬미씨움은 새로운 평의회가 아니다. 꼬미씨움은 자기의 고유한 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꾸리아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면서 소속 브레시디움들을 직접 통치한다. 이러한 본래의 기능에 추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꾸리아를 감독하는 것이다.

꼬미씨움의 감독을 받는 꾸리아들의 간부 선거 결과는 직속 상급 평의회인 꼬미씨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꼬미씨움에 직속된 각 꾸리아와 브레시디움은 꼬미씨움 월례회의에 대표자를 보낼 자격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이 대표자들은 꼬미씨움의 간부들을 선출할 투표권이 있다. 꾸리아 간부가 꾸리아 회합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꼬미씨움 회합에 매년 참석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꼬미씨움 회합에 참석할 의무를 경감해주는 사안은 그 꾸리아에서 다루어 두 번 또는 세 번에 한 번씩만 꼬미씨움 회합에 참석하도록 허락해줄 수 있다. 꼬미씨움에 직속된 모든 꾸리아의 대표자들이 같은 달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꼬미씨움은 통상적으로 한 교구 이상의 넓은 지역을 관할할 수 없으나 더 좁은 지역은 관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한 교구 내에 꾸리아의 수가 많다거나 또는 꾸리아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교구에서는 둘 이상의 꼬미씨움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올바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나의 꼬미씨움이 타 교구나 타 교구들에 있는 하나나 여러 꾸리아들을 교회 인가를 받은 후 감독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3. 영적 지도자는 꾸리아(또는 꼬미씨움)가 활동하고 있는 교구 직권자가 임명한다.

4. 꾸리아는 소속 브레시디움을 레지오의 정관에 따라 관할한다. 꾸리아는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브레시디움의 간부를 임명하고 그들의 임기를 점검해야 한다. 간부 임명 방법에 관해서는 제14장 [브레시디움] 1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5. 꾸리아는 브레시디움과 그 단원들이 규율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해야 한다. 꾸리아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뿌레시디움 간부들이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뿌레시디움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 (나) 각 뿌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일.
- (다) 뿌레시디움의 활동 경험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선하는 일.
- (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일.
- (마) 레지오 단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
- (바) 모든 단원이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일.
- (사) 레지오 확장과 협조단원 모집에 힘쓰도록 뿌레시디움을 격려하는 일(협조단원을 돌보고 그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일 포함).

그러므로 꾸리아가 평의회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꾸리아 전체, 특히 간부들에게 높은 수준의 정신적 용기가 명백히 요구된다.

6. 레지오의 운명은 꾸리아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 미래는 꾸리아의 발전 여하에 달려 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꾸리아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레지오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18세 미만의 레지오 단원은 성인 꾸리아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꾸리아의 판단에 따라 소년 꾸리아를 설립하여 성인 꾸리아에 소속 시킬 수 있다.

8. 꾸리아의 간부, 특히 단장은 소속 단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처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 또는 그 밖의 여러 문제들을 의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꾸리아의 간부, 특히 단장은 그 책임이 막중하므로 직무 수행에 상당한 시간을 바칠 수 있는 단원이 선출됨이 바람직하다.

10. 꾸리아에 소속된 뿌레시디움의 수가 많으면 꾸리아 회합에 참석하는 평의원 수도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문제나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레지오는 이러한 불편을 다른 측면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레지오는 꾸리아가 단순히 관리 기구라는 임무 이외에 다른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꾸리아는 그 소속 뿌레시디움의 심장이며 머리이다. 꾸리아는 일치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각 뿌레시디움과 연결하는 끈

(곧 평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치는 더욱 튼튼해지며, 뽀레시디움은 레지오의 정신과 체계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게 된다. 레지오의 본질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교육하는 곳은 꾸리아 회합뿐이다. 꾸리아 회합을 통하여 뽀레시디움은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모든 행동단원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11. 꾸리아는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일 년에 두 번씩, 각 뽀레시디움을 방문하여 뽀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트집을 잡거나 허물을 들추어내는 식으로 방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면 꾸리아가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충고를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된다. 이와는 달리 가르치는 것만큼 배우는 것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가짐과 애정으로 뽀레시디움을 방문하여야 할 것이다.

뽀레시디움을 방문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1주일 전에 그 뽀레시디움에 알려 주어야 한다.

뽀레시디움 방문을 마치 '외부 간섭'처럼 여겨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가끔씩 들려온다. 이러한 태도는 레지오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뽀레시디움은 레지오의 지체(肢體)일 뿐이며, 충성스러운 지체이어야 한다. 손이 머리더러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뽀레시디움 하나하나가 바로 그러한 '외부 간섭'에 의존하여 세워져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하는 태도는 고마움을 모르는 태도이다. 그러한 태도는 평의회로부터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뽀레시디움의 태도와도 모순이 되며, 보편적 경험에 의하여 뽀레시디움에 유익하다고 판명된 것들을 뽀레시디움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조직체는(종교나 사회 또는 군사 조직을 가릴 것 없이) 정신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 지도 체제 원리'를 실질적이며 필수적인 사실로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중앙 기관이 단위 조직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유능한 관리 기관은 이러한 의무를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다.

꾸리아의 뽀레시디움 방문은 뽀레시디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뽀레시디움은 꾸리아의 방문이 레지오 규정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따라서 꾸리아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정중하게 맞이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꾸리아가 방문할 때에는 각종 단위 명부, 서기의 회의록, 회계 장부, 활동 계획서 및 그 밖의 뽀레시디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 모든 문서와 장부가 올바르게 기록 보관되고 있는지 살피고, 아울러 단원들이 규정된 수련 기간을 마치면 제때에 선서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점검은 꾸리아가 지명하는 두 사람의 대표가 수행한다. 꾸리아 간부에 국한하지 않고 경험 많은 레지오 단원이면 누구라도 꾸리아 대표로서 방문할 수 있다. 방문을 마친 후에는 뵤레시디움 방문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꾸리아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양식은 끈칠리움에서 얻을 수 있다.

뵤레시디움 방문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은 처음부터 뵤레시디움이나 꾸리아 회합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해당 뵤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 및 단장과 의논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비로소 꾸리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12. 꾸리아와 평의원들의 관계는 뵤레시디움과 소속 단원들의 관계와 많은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단원들이 뵤레시디움 주회합에서 갖추어야 할 출석에 대한 자세나 회합 중의 태도에 대한 설명은 뵤레시디움 간부들이 꾸리아 회합에서 지녀야 할 정신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뵤레시디움 간부들이 꾸리아 월례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면에서 아무리 열성을 다한다 해도 충분하지 못하다.

13. 꾸리아 회합은 직속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얻어 꾸리아 자체에서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어야 한다. 꾸리아 회합은 될 수 있는 대로 매월 적어도 한 번은 열어야 한다. 회합을 자주 열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장의 ‘1. 모든 통치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 19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회의 안건은 서기가 단장과 의논하여 미리 준비한 후, 꾸리아 회합 직전의 뵤레시디움 주회합에 앞서, 영적 지도자와 뵤레시디움 단장에게 배부해야 한다. 뵤레시디움 단장은 이 안건에 대하여 뵤레시디움의 다른 간부들에게 꾸리아 회합 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회의 안건은 잠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평의원들이 꾸리아 월례회의에서 자유로이 안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꾸리아는 뵤레시디움이 물질적인 원조 활동에 말려들으로써 참으로 유익한 온갖 레지오 활동을 끝내버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꾸리아가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를 점검하면 그러한 잘못을 사전에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6. 단장은 극히 소소한 일까지 반드시 자신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흔한 오류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는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한 태도는 일을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빚는다. 더구나

할 일이 많은 상급 평의회에서는 그런 태도가 전체 조직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병목이 좁을수록 병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더디게 나올 것이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병목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더욱 중대한 잘못은, 일을 맡을 만한 적절한 단원이 있는데도 그 단원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자세는 자격을 갖춘 그 단원에게 뿐만 아니라 레지오 전체에 손실을 가져온다. 어느 정도의 책임을 맡겨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뛰어난 자질을 발전시키는 데도 필요한 요소이다. 책임은 참으로 모래를 금으로 바꾸어 놓는 힘을 지니고 있다!

서기는 서기의 일에만 업무를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회계도 장부만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간부를 비롯하여 연장자 단원과 장래가 촉망되는 단원들에게는 주도권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맡겨야 한다. 물론 그러한 일은 상급 간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레지오가 영혼들을 돕는 강력한 수단으로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단원들로 하여금 책임 의식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은 일치 위에 세워졌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모든 활동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일치들 가운데 가장 놀라우리만큼 단순하시고 탁월한 일치이신 당신 자신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속성과 행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따라서 질서와 조화는 하느님의 참된 본질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뉴만 추기경 Cardinal Newman : 일치의 증거와 수단인 질서)

[이 인용문과 다음에 이어지는 세 절의 인용문은 원문에서는 한 구절이다.]

3. 레지아

1. 레지아(Regia)는 넓은 지역의 레지오 마리아를 관장하도록 콘칠리움으로부터 지정된 평의회이다. 레지아는 그 지위에 있어서 세나투스 다음 가는 평의회이다. 레지아를 콘칠리움 직속 산하에 둘 것인지 아니면 세나투스 직속 산하에 둘 것인지는 콘칠리움이 결정한다.

2. 기존 평의회가 레지아 지위로 승격되면, 본래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면서 추가로

레지아로서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이 장의 ‘1. 모든 통치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 19절 참조).

레지아의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레지아 직속 산하의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

(나) 기존 평의회가 레지아 지위로 승격된 경우, 그 평의회의 간부.

3. 레지아의 영적 지도자는 레지아가 관할하는 교구들의 교구장 주교들이 임명한다.

4. 레지아 직속 산하 평의회들의 간부 선거 결과는 레지아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평의원들은 거리상의 문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레지아 회합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5. 경험에 따르면, 레지아가 먼 거리에 있는 직속 산하 평의회들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통신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통신원은 담당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매달 접수하는 회의록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레지아 회합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원은 레지아 회합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는 참여하나, 레지아의 평의원이 아니므로 투표권은 없다.

6. 레지아 회합의 회의록 사본을 레지아 직속 산하 평의회들에 보내야 한다.

7. 평의원의 레지아 월례회의 참석률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레지아 구성 개편안이라도, 그 제안 당사자인 레지아가 곧칠리움에 직속되어 있든, 아니면 세나투스에 직속되어 있든, 곧칠리움의 공식 재가를 받아야 한다.

8. 레지아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의 궁정과 집무실을 일컫는 말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왕의 도읍이나 왕궁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 속성에서는 다양하고 뚜렷이 구분되어 계시나 오로지 한 분이시다. 그분은 거룩함이시고 정의이시며, 진리이시고 사랑이시며, 권능이시고 지혜이시지만, 각각의 속성들은 마치 하느님은 오로지 한 속성만 지니실 뿐 나머지 속성들은 가지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존재하게 된다. 이는 하느님의 본성 안에는 한없이 탁월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질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질서는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속성이며, 다른 모든 속성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뉴

만 추기경 Cardinal Newman : 일치의 증거와 수단인 질서)

4. 세나투스

1. 한 나라의 레지오 마리아를 관리하도록 콘칠리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평의회를 세나투스(Senatus)라고 부른다. 세나투스는 콘칠리움에 직속되어야 한다.

국토의 크기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의 세나투스로서는 불충분한 경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나투스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세나투스는 콘칠리움에 직속되어야 하며, 콘칠리움이 배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레지오를 관장해야 한다.

2. 기존 평의회가 세나투스 지위로 승격되면, 본래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면서 추가로 세나투스로서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이 장의 ‘1. 모든 통치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 19절 참조).

세나투스의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세나투스 직속 산하의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

(나) 기존 평의회가 세나투스 지위로 승격된 경우, 그 평의회의 간부.

3. 세나투스의 영적 지도자는 세나투스가 관할하는 교구들의 교구장 주교들이 임명한다.

4. 세나투스 직속 산하 평의회들의 간부 선거 결과는 세나투스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평의원들은 거리상의 문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세나투스 회합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5. 경험에 따르면, 세나투스가 먼 거리에 있는 직속 산하 평의회들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통신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통신원은 담당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매달 접수하는 회의록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세나투스 회합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원은 세나투스 회합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는 참여하나, 세나투스의 평의원이 아니므로 투표권은 없다.

6. 세나투스 회합의 회의록 사본을 콘칠리움에 보내야 한다.

7. 평의원의 세나투스 월레회의 참석률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세나투스 구성 개편안이라도 콘칠리움의 공식 재가를 받아야 한다.

“하느님은 무한한 권능이시자 지혜이시며 사랑이실 뿐 아니라 무한한 법이시기도 하다. 게다가 질서라는 이 개념에는 종속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만일 질서가 하느님의 속성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그 속성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며, 각 속성 그 자체로는 완전하나 나머지 속성들의 완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나머지 속성들에게 복종한다고 여겨져야 한다.”(뉴만 추기경 Cardinal Newman : 일치의 증거와 수단인 질서)

5.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아에

1. 레지오에는 레지오에 대한 최고 통치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 평의회가 있으며 이를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아에(Concilium Legionis Mariae)라고 부른다(이하 ‘콘칠리움’이라고 한다). 콘칠리움은 이 교본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교회 권위가 가진 권한에 순명하면서, 레지오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해석할 권리, 지역을 불문하고 브레시디움과 하급 평의회를 설립하거나 거부할 권리, 제반 사항에 대한 레지오의 정책을 정할 권리, 모든 분쟁과 제소와 단원 자격 문제 및 사업과 사업 이행 방식의 적합성에 관계된 모든 사안들을 판정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콘칠리움은 매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월레회의를 갖는다.

3. 콘칠리움은 직무의 일부를 하급 평의회 또는 개별 브레시디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라도 위임한 직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콘칠리움은 자신의 본연의 직무와 더불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하급 평의회 직무를 겸할 수 있다.

5. 콘칠리움은 그 산하에 직속되어 있는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로 구성해야 한다. 더블린 대교구의 성인 꾸리아 간부들은 콘칠리움 회합의 핵심 평의원이 된다. 그 밖의 콘칠리움 직속 산하 레지오 기관들에 소속된 평의원들은, 거리상의 이유나 기타 이유 등으로, 거의 대다수가 콘칠리움 월레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블린 꾸리아의 대표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콘칠리움에 유보된다.

6. 콘칠리움의 영적 지도자는 아일랜드의 주교회의가 임명한다.

7. 직속 산하 평의회는 간부 선거 결과는 콘칠리움의 초인을 받아야 한다.

8. 콘칠리움은 통신원을 임명하여 먼 거리에 있는 직속 산하 평의회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원은 담당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매달 접수하는 회의록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콘칠리움 월례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원은 콘칠리움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 참여하나, 콘칠리움의 평의원이 아니므로 투표권은 없다.

9.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콘칠리움의 대표는 레지오의 관할 지역 어느 곳이나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역의 레지오 조직체를 방문할 수 있으며, 홍보 성격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아울러 콘칠리움이 행사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일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0. 콘칠리움만이 레지오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교본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11. 레지오의 규정은 대다수 레지오 기관의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규정 개정안이 나오면 관련된 평의회를 통하여 레지오 조직체에 통보한 후, 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콘칠리움 회합에 대표자를 직접 파견하거나 또는 서면을 통하여 표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권능은 참으로 무한하지만 그 무한한 권능은 당신의 지혜와 정의에 종속되어 있고, 하느님의 정의는 무한하지만 그 무한한 정의 역시 당신의 사랑에 종속되어 있으며,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무한한 사랑은 당신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함에 종속되어 있다. 하느님의 속성과 속성 사이에는 상호 깊은 이해가 흐르므로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각 속성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무한하게 존재하는 무한한 속성들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질서 안에서 작용하면서 무한하게 단순한 하느님의 일치 안에서 함께 결합한다.”(뉴만 추

기경 Cardinal Newman : 일치의 증거와 수단인 질서)

제29장 레지오 단원의 충성

조직의 기본 개념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따라서 레지오 역시 일반 행동단원으로부터 최고 간부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결속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결속이 약화되면 조직의 생명마저 위협받기 때문이다.

자원(自願) 단체에서는 충성이 결속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레지오에서 충성이란 쁘레시디움에 대한 단원들의 충성, 꾸리아에 대한 뿌레시디움의 충성을 비롯하여, 곤칠리움 레지오니스에 이르는 모든 상급 기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교회 권위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 참된 충성은 단원이나 뿌레시디움 또는 평의회로 하여금 조직의 결속을 해치는 독자적인 행동을 경계하게 한다. 의문점이나 애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모든 새로운 활동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합당한 관할권자의 지도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충성의 열매는 순명이다. 그리고 순명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순명을 한다는 것은 늘 쉽지 않다. 순명한다는 것이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때도 있다. 순명은 사실 일종의 순교와도 같다. 이나시오 데 로올라 성인(St. Ignatius of Loyola)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순명에 관해 말하였다. “아낌없는 노력으로 순명하기를 결심하는 이들은 큰 공로를 쌓는다. 순명은 희생이 따른다는 의미에서 순교와 비슷하다.” 레지오는 자기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조직의 정당한 권위라면 어떤 권위에 대하여서도 영웅적이고도 유순한 순명의 정신을 지니기를 바라고 있다.

레지오는 일종의 군대이자, 그것도 지극히 겸손하신 동정 성모님의 군대이다. 레지오는 이 지상의 어느 군대라도 보여줄 영웅적 행위와 희생, 가장 고귀한 희생까지도 넉넉히 보여주어야 한다. 게다가 레지오 단원들은 극도로 힘든 영웅적 행위와 희생을 행하도록 상시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물론 이 세상의 군인들처럼 부상당하거나 전사할 때까지 몸을 바치라고 요청받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영적인 사안에서는 더 높은 지위에 영광스럽게 오르라고 요청받을 것이다. 간부나 상급 기관이 요구할 때, 자기가 가진 감정과 판단과 독립심과 자존심과 의지가 상처 입을 때까지, 온 마음으로 복종했는데도 그마저도 죽여야 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시인 테니슨(Tennyson)은 “순명은 결속을 보장해 주지만, 불순명은 큰 상처를 남길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고의적인 불순명만이 레지오의 생명선을 끊는 것은 아니다. 간부들이 주 회합이나 월례회의 참석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통신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브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레지오 조직의 흐름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이로써 레지오의 생명선은 끊기고 만다. 또한 간부나 단원이 회합에는 참석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레지오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께 순종하셨다. 복음사가들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지내신 나자렛에서의 숨은 생활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루카 2,51-52 참조) 혹시 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모순되는 점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이신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 그분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실 정도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마태 20,28),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필립 2,8) 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 점이 주님께서 어머니께 순종하고자 하신 이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에서 마리아와 요셉, 곧 하느님께서 당신과 가까이 지내도록 특전을 내리신 두 분께 순종하셨다. 마리아는 영원하신 성부께서 아드님의 인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권능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께 드린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요한 8,29) 라는 말씀을 당신 어머니이신 마리아께도 똑같이 할 수 있으셨던 것이다.”(마르미옹 Marmion : 영혼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제30장 행사

꾸리아는 소속 레지오 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아 서로 어울리도록 하여 단원과 단원 사이의 친교를 도모하고 일치의 정신을 기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실시하는 레지오의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아치에스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단원들은 해마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해야 한다. 개인 및 단체 봉헌으로 이루어지는 이 봉헌식은 3월 25일을 전후해서 개최하는데, 이를 아치에스(the Acies)라 부른다. 아치에스는 라틴어인데 ‘전투 대형을 갖춘 군대’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레지오 단원들이 레지오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고, 성모님으로부터 앞으로 한 해 동안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힘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로서 모이는 의식을 가리키기에 적당한 말이다. 더 나아가, 이 용어는 브레시디움이라는 명칭과도 좋은 대조를 이룬다. 브레시디움이라는 명칭은 레지오가 연합 진용을 풀고 작은 부대들로 나뉘어져서 각기 다양한 특정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치에스는 레지오에서 가장 크고 중심을 이루는 연례 행사이므로, 모든 단원이 빠짐없이 이 행사에 참석해야 함은 강조되어 마땅하다. 레지오의 근본 이념은 모후이신 성모님과 일치하고, 성모님께 의탁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이 근본 이념 위에 레지오의 모든 것이 세워져 있다. 바로 이러한 성모님과의 일치와 의탁을 엄숙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치에스 봉헌식이다. 이 봉헌식을 통하여 단원들은 개인 및 단체로서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원이 능히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한다면, 그는 레지오 정신이 아주 희박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단원을 레지오에서는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아치에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치에스 봉헌식을 거행하기로 정한 날 단원들은, 가능하면 성당에 모여야 한다. 적당한 위치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을 모시고 꽃과 촛불로 꾸민다. 성모상 앞에는 대형 벅실리움 모형을 세워 놓는다. 벅실리움에 관한 설명은 제27장에 실려 있다.

의식은 성가로 시작하며, 이어서 시작 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친다. 그 다음 사제가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한다. 설교가 끝나면 성모상을 향하여 봉헌 행렬을 시작한다.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한 줄로 나가고, 이어서 단원들이 역시 한 줄로 그 뒤를 따른다. 단원 수가 많을 때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나갈 수도 있다. 벅실리움 앞에 이르면 각 단원(또는 짝을 이룬 두 단원)은 멈추어 선다. 그리고 벅실리움의 깃대를 잡고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한다.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봉헌이 끝나면 벅실리움에서 손을 떼고 가볍게 절을 한 후 자리로 돌아간다. 단원 수가 많을 때는 이런 개별적 봉헌 행위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의식 자체가 깊은 인상을 심어 주므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욱 클 것이다. 단원들의 봉헌 행렬이 계속되는 동안 오르간 연주가 곁들여진다면 의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벅실리움을 한 개 이상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편법으로 봉헌 예절의 진행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일치의 아름다움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두르는 듯한 인상은 의식의 조화를 깨뜨릴 것이다. 아치에스의 특징은 질서와 엄숙한 분위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단원들이 제자리에 돌아오면, 사제가 단원들을 대표하여 성모님께 대한 봉헌 기도를 다시 한 번 큰소리로 바친다. 이어서 단원 모두가 일어서서 까떼나를 바친다. 그 다음, 가능하면, 성체 강복 예절을 가진 후 마침 기도와 성가로써 아치에스를 마친다.

물론 아치에스 행사에 미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 경우에는 성체 강복 예절 대신에 미사를 봉헌하며, 나머지 절차는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미사는 ‘헌신적인 동반자이셨으며, 또 주님의 겸손한 종’(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61항)이신 성모님의 손에 방금 놓아 드린 모든 봉헌과 영적 선물을 자신 안에 흡수하여 이를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영원한 성부께 바친다.

위에 인용한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라는 봉헌문을 기계적으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바쳐서는 안 되며,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곁들여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부록 11 [성모 마리아께서 맡고 계신 역할의 개요]는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개요에는 성모님이 구원 사업 안에서 맡으셨던 유일무이한 역할이 설명되어 있으며, 우리 각자가 성모님께 감사 드려야 할 빛이 어느 정도인가를 밝히고 있다. 아치에스 행사 바로 앞에 열리는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 영적 독서와 훈화의 주제로 이 개요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아치에스에서 단체 봉헌문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성모님은 지옥의 세력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시며 ‘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아가 6,10) 분이시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현명한 사령관처럼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도록 당신의 힘과 자비와 기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St. Alphonsus Maria de Liguori)

2. 연차 총 친목회

꾸리아는 될 수 있는 대로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에 가까운 날에 모든 단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연차 총 친목회를 열어야 한다. 원한다면 교회 예식 거행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행사에는 친교의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 예식 거행 때에 레지오의 기도문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뗏세라의 기도문을 보통 회합 때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쳐야 한다.

연차 총 친목회의 참가 범위는 레지오 단원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다. 여흥 순서에 곁들여 레지오와 관련된 이야기나 글을 발표하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단원들이 너무 격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많은 단원들이 참석하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 행사의 취지는 참석한 단원들이 모두 서로 낯을 익히고 친숙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원들이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순서를 짜야 한다. 진행을 맡은 사람들은 단원들이 끼리끼리 무리를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원들이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있게 되면 레지오 가족의 단결과 우애의 정신을 복돋우려는 이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뻐하였으며, 이 기쁨으로 그의 영적 기사도 정신은 한층 더 감미로운 매력을 더해 주었다. 참된 그리스도의 기사로서 그는 주님의 신하임을 기뻐하고,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의 청빈과 수난을 본받는 것을 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얻은 기쁨을 온 누리가 두루 알도록, 하느님의 음유 시인이 되어 노래하였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생은 이러한 기쁨의 노래로 충만하였다. 그는 자신과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고요하고도 충만하게 노래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안팎으로 언제나 즐거운 분위기에 싸여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다. 또한 형제 수도자들과 함께 순수한 기쁨을 나누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그 기쁨을 극대화시켜 공동체의 모든 형제들이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듯한 아름다운 분위기를 느끼도록 만들 줄도 알았다. 이러한 천상적 기쁨은 그가 형제 수도자들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도 가득히 스며 있다. 고행하기를 요구하는 그의 설교는 결국은 기쁨의 찬미가로 바뀌었으며,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은 마치 축제와도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다.”(헬데르 Felder : 아씨 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상)

3. 야외 행사

야외 행사는 레지오의 초창기부터 시작되었다. 이 행사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이다. 소풍, 성지 순례 또는 야외 모임의 형태로 실시한다.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 꾸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뵈레시디움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몇 개의 뵈레시디움이 모여서 합동 행사로 할 수도 있다.

4. 뵈레시디움 친목회

레지오는 모든 뵈레시디움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9월 8일)을 전후하여 친목회를 갖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많은 뵈레시디움이 있는 곳에서는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뵈레시디움이 함께 모여 공동 행사로서 치를 수도 있다.

레지오 단원이 아니라도, 마땅한 신자가 있으면, 단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를 초청할 수 있다.

뵈레시디움 친목회에서는 뵈레시디움 주회합에서 하듯이 뗏세라의 전 기도문(묵주기도 포함)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칠 것을 권고한다. 기도 바치는 데 드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으나, 성모님께 바치는 이 짧은 기도는 행사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값진 보상을 받게 된다. 레지오의 모후는 '우리 즐거움의 원천'이므로 이 행사를 특별한 즐거움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노래 등의 여흥 순서 가운데는 레지오에 관한 간단한 담화 하나 정도는 곁들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단원들이 레지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우게 될 것이며, 진행 순서 역시 다채로워질 것이다. 여흥만 계속되면 싫증이 날 수도 있다.

5. 토론 대회

레지오 최초의 토론 대회는 1939년 부활 주일에 클레어 꾸리아(아일랜드)가 개최하였다. 이 첫 대회의 성공을 계기로 이를 모방한 토론 대회들이 뒤따랐고 늘 성공을 거두었다. 토론 대회는 이제 레지오 조직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토론 대회는 꼬미씨움 또는 꾸리아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대회의 규모를 더 넓게 잡으면 이 대회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큰 모임을 열 수는 있겠지만 토론 대회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토론 대회에 갈음하는 모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평의원들을 토론 대회의 참관인으로 초청할 수는 있다.

곤칠리움의 규정한 바에 따르면, 이 토론 대회는 2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대회는 온전히 하루를 바쳐야 한다. 피정의 집 같은 장소를 빌릴 수 있다면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진행 절차는 가능하면 미사로 시작하고, 영적 지도자 또는 다른 사제의 짙막한 설교가 있어야 하며, 성체 강복으로 끝을 맺는다.

하루를 몇 등분하여 여러 차례의 회기로 나누고, 매 회기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다룬다.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은 미리 준비한 사람의 간략한 주제 발표로부터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가 토론에 적극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 대회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진행을 맡은 간부들은 결코 발언을 독점해서는 안 되며,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토론 대회도 평의회 회합과 같은 의회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즉, 의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의장은 토론하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논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 토론 대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레지오의 상급 기관을 대표하는 단원이 특별한 역할, 이를테면 사회나 주제 발표 등을 맡아 토론 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웅변은 때때로 과장된 분위기를 자아내므로, 웅변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는 레지오다운 것이 아니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토론 대회는 전 단원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브레시디움 간부들만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회기에 한하여 참가자들을 간부와 평단원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 간부는 직책별로 다시 나누고 평단원은 단일 분과로 놓아둘 수 있다. 이로써 각 분과는 고유한 임무와 필요 사항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참가 단원들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유형에 맞추어 나누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과 구분은 다만 임의 결정 사항일 따름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두 번째 회기부터는 분과별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단원들을 한 자리에 소집해 놓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간부의 임무는 직책상 주어진 통상 업무보다 그 폭이 훨씬 넓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서기가 자신의 업무 한계를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만으로 묶어 둔다면, 그는 간부로서 결함이 있게 될 것이다. 브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꾸리아의 평의원이므로, 이 대회의 분과별 토론을 통해서 꾸리아의 실제 회합 및 일반 관리 업무와 관련된 꾸리아의 제반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토론 대회가 꾸리아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세부적인 관리 사항이나 질의 사항들만을 다룸으로써 통상적인 꾸리아 월례회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이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모든 것은 꾸리아가 실천에 옮겨야 한다.

토론의 주제는 레지오의 기본 원칙과 연관된 것이어야 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레지오의 신심 체계 : 단원들이 레지오 신심의 여러 측면들을 상당한 깊이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레지오를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신심이 적극적인 활동과 긴밀히 연결됨으로써 활동의 동기와 정신이 되지 않는다면 레지오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마치 영혼이 육신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레지오의 신심이 레지오가 펼치는 전체 활동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나) 레지오의 질적 수준 및 이를 높이는 방안.

(다) 레지오의 운영 방법 : 회합 진행 방법이나 단원들의 활동 보고 방법 및 이를 논평하는 기술 등 주요 사항.

(라) 레지오 활동 : 기존 활동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레지오가 모든 사람에게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계획 등.

토론 대회의 순서 가운데는 레지오의 신심이나 이상 또는 의무에 관한 영적 지도자나 자격을 갖춘 단원의 특별 강연이 들어 있어야 한다.

매 회기를 시작하고 끝낼 때마다 기도를 바쳐야 한다. 그중 세 번은 레지오의 기도문

을 바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운영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소홀히 하면 결국 하루 전체를 망치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토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대회마다 다른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한 대회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가 거듭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해 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변화 자체를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셋째로, 대회가 성공을 거두면 다음 대회에도 전과 같은 행사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자연히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회가 성공을 거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회에서 다른 주제가 참신했기 때문이었음이 분명한 일이다. 그런데 그 주제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주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제의 참신성이 토론 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때, 매번 새롭고 독창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일은 토론 대회의 필수 요건이다.

“성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늘로부터 큰 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큰 힘은 사도들 위에 내리시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싸움에 대비하도록 무장시키실 것이다. 이처럼 고요와 평화가 깃든 거룩한 집에서 우리는 존경으로 가득한 눈길로 주님의 어머니이시며 성령의 걸작품이시자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교회이신 성모님을 바라본다. 사도들 위로 내려오셨던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성모님에게서,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듯이, ‘투쟁하는 교회’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새 하와이신 성모님은 이 ‘투쟁하는 교회’를 대표하시면서 여전히 당신 태중에 품고 계신다.”(게랑게 Guéranger : 전례주년)